

새한, 경산공장 부지 22만평 매각

5월18일까지 인수 우선협상자 선정키로 ... 차입금 6186억원 변제

새한은 경북 경산 공장부지 22만평에 대한 투자 재유치에 나선다고 5월6일 발표했다.

새한은 5월10일 마포구 공덕동 사옥 13층 대회의실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18일까지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2004년 3월과 9월에 경산 공장부지에 대해 투자유치를 추진했지만 유찰됐었다.

새한은 투자유치에 성공하면 현재 차입금이 6186억원에 달하는 재무구조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한은 2004년 투자 유치규모를 최소 2300억원으로 설정했다.

새한 관계자는 “부동산 시세가 좋기 때문에 투자유치가 완료되면 2004년 예상치보다 큰 규모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05/05/09>